

“될 때까지! 총파업 깃발 들고 전진한다”

7월 10일 금속노조 1차 총파업 ... 전국 11곳 총파업대회 열어

금속노조가 7월 10일 1차 총파업에 나섰다. 이날 파업에 한국지엠지부, 모듈부품사, 한화오션 등 6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주요 모듈부품사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완성차 라인 역시 일부 정지했다.

이날 노조는 전국 11개 지역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앞에서 열린 수도권 총파업대회에 3,000명이 집결했다.

이 자리에서 장창열 노조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거부하면서 시행령으로 법 위에서 정권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제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요구안을 쟁취할 때까지, 윤석열을 끌어내릴 때까지, 우리는 총파업의 깃발을 들고 전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현석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과 백이현 경기지부 현대위아안산지회장, 김상겸 인천지부 KM&

지회장도 금속노조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한목소리로 ‘윤석열 퇴진 투쟁과 노조 무력화 분쇄 투쟁에 금속노조가 선두에 나서자’라고 촉구했다.

수도권 총파업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국회 앞으로 행진해 이후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단위노조 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에 결합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엄상진 노조 사무처장은 “재산 가압류, 월급 가압류, 악랄한 노동조합 말살 책동에 주검이 되신 배달호 열사, 김주익 열사, 500억 손배

폭탄 거통고 조선훈치회를 기억한다”라며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손도 대지 못하도록 우리 노동자들이 먼저 거부권을 행사하자”라고 호소했다.

최현환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도 마이크를 잡았다. 최 지회장은 “외투자본의 위장 폐업과 먹튀, 노동 탄압을 용납할 수 없다”라며 “먹튀방지법을 만들고 니토덴코가 직접 책임지도록 만들겠다. 185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두 동지를 지키고, 반드시 이 투쟁 승리로 이끌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아사히글라스 해고자, 드디어 공장으로 돌아갑니다”

대법원,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 ... 9년 만에 최종 승소

아사히글라스 하청노동자들이 사측의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시작한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다. 사측의 불법파견과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한 지 9년 만이다.

11일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 하청노동자 23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아사히글라스가 직접 고용하라는 것.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 관계에 있어 아사히글라스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 대법원은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 법인, 하청업체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므로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 라고 판단했다.

노조는 선고 직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을 환영했다. 차현호 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9년 동안 즐겁게 투쟁했지만, 또 괴로운 시간도 있었다. 오늘 조합원들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저 좋다” 라고 승소 소감을 밝혔다.

차현호 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끝까지 함께 싸워준 조합원들 고맙다. 연대 동지들이 있

었기에 가능한 투쟁이었다” 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차현호 지회장은 “드디어 민주노조 깃발 들고 2015년 우리를 해고한 공장으로 돌아간다” 라며 “이제 현장에서 일하며 당당하게 노동조합 활동하겠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사히글라스는 지난 2015년 7월 하청업체 GTS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GTS는 노동자 178명 전원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그 후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부당해고 철회 투쟁을 벌이며 아사히글라스 원청의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을 법정에서 다투었다.

캐스퍼 생산 노동자들, 8일 광주글로벌모터스 지회 설립총회 열어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자들이 8일 오후 광주 광산공장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함께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설립총회를 열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광주시가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만든 사업장이다. ‘광주형 일자리’ 로

불리는 지지엠은 현대차 위탁을 받아 캐스퍼를 생산한다. 광주시가 21%, 현대차가 19% 지분을 갖고 있다.

정부와 광주시는 지지엠 설립을 추진하며 국내 완성차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대신 주거·보육 등 사회적 임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지엠 출범 5년 동안 사회적 임금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됐다. 현대차 사측은 책임 없이 주도권만 행사한다.

사측은 수사 점검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노동 안전 관련 법조차 무시한다. 3백 명도 넘는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노동조건과 노동강도 등에 지쳐 자진 퇴사했다는 게 지지엠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이날 지회 설립총회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조합원들은 지지엠 사측에 ▲금속노조 인정 ▲단체교섭 개시 ▲노동조합 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지회장 등 지회 임원을 선출하기도 했다.